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 3권 우편증(기)급인가

등록 1964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2525호

수영환
박순이
인경장
인집
행집
발행주
현장
외대학보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황산리
인쇄인 한국경제신문사 이규현

제 502 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8년 11월 1일 (화요일)

뜨거운 가슴모아
조국의 어둠을 불사르자!



판화: 남궁산 (화가)

학생의 날 특집 12면

- 1면: 학보 기획사
- 2면: 논설면—통북이강세 고찰
- 3면: 보도기사
- 4면: 학술 1면—북한시리즈<4>
- 5면: 사회 1면—관개기관 대체회
- 6면: 문화 1면—문화의 분석
- 7면: 특집면—고교생 운동과 교육론
- 8면: 학술 2면—민족운동의 새정점, 항일무주부 투쟁사
- 9면: 문화 2면—사회주의 문예이론 <4>
- 10면: 보도기획면—학내연구소 현황과 문제점
- 11면: 문화면—선후기 분별 모집
- 12면: 문화 1면—「대학주의」란 무언인가

여군 사관후보생 모집

1.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졸업 예정자
- 연령: 만 20~27세 미만 미혼 여성

2. 구비서류

- 협력 부무지원서 1부
-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입학 학력고사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 호적등본 2부
- 주민등록등본 2부 ○ 사진(4×5센티) 5매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장소: 각 시도 지방병무청 및 여군부대
- 기간: 1988. 10. 31부터 ~ 1989. 1. 14까지

4. 시험과목

- 논, 문 ○면, 접 ○신체검사

5. 특 선

- 입학 후 각종 국내 학위과정 및 해외 유학 기회 부여

6. 문의처

- 각 지방병무청 모병관, 여군부대
- 청: 793-3540

한국외국어대학교

031-708-2211~2212, 2214~2215

031-708-2211~2212, 2214~2215

031-708-2211~2212, 2214~2215

031-708-2211~2212, 2214~2215

031-708-2211~2212, 2214~2215

031-708-2211~2212, 2214~2215

교육대학원 (야간) (전) 963-6881 (주) 965-7001 (주) 2116

1. 모집 대상: 1. 대학원생 100명

2. 모집 전시: 1. 대학원생 100명

3. 시험 과정: 1. 대학원생 100명

4. 지원 대학원생수: 1. 대학원생 100명

5. 시험 일정: 1. 대학원생 100명

그들이 봄바다 바쳤다

김행수 (시인)

자대학원 학생모집

1989학년도 전기

사설

다시 새겨보는 학생의 날

—광주 학살·5공비리의 주역처벌로 나서야

을 해로 학생의 날이 되어야 맞는다.

1929년 11월, 광주학교(경기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은 집단 폭행으로 밤낮이 되었던 학생의 날은 일제시민통치에서 신관하던 민족의 기회에 대한 신념을 심어 주었고, 또한 광활한 흐드름에 대한 신념을 물려내며 대량학살은 학생들의 정신을 상처를 심어가는 절정은 저지른 학생의 기운에 새겨 모은 별이를 확인하고 그 기운을 구현하고자 했었다. 때문에 59회학회를 맞이하는 학생회는 날마다 바쁜 학교 학사 5공비리의 주역 처단을 위한 청년학회·총 파업파업날 이라는 것은 매우 잘 깊은 일이다.

거기서 일제의 보리배들의 응징을 기념하는 날에 오늘의 모임과 대들을 응징하는 기념행사를 벌인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다면 또 한 학생회에서의 학생들은 이렇게 모든 불의와 같은 현상으로서 우리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가? 바쁜 학생이라는 특수한 범주의 성원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학생은 일상화로 정의감이 강하고 정의와 진리를 가진다는 점이고 그의 절대적인 믿음은 인식하고 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맥이지만, 모든 불의에 맞서는 행동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은 부모에게 현실을 높은 비판적 인식으로 치사화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가치있는 비판과 실천도 결의해낸다.

일제 시민시대 이외에도 4·19만보더도 이는 쉽게 증명되며 지난 8년간 6월의 민주화에 대한 법칙인 걸기 역시 학생운동이 현실적 노력이 드러선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즉, 한국사회의 범위에 대한 부분 역시 크게 적용을 한다. 낡았음을 학파하고 세월을 환경오염과 같은 학생들에게 위장자와 백성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구상권과의 충돌로 일본과의 시리즈로 개발하여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렇듯 각 국가와 체제 그리고 일본국의 구상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표지를 어떻게 신네트워크와 남·북한화해의 후보기로 전개되었으며 이후의 주인은 어떻게 훌륭한 개인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노태우 UN연설과 동북아정세

김 경 식
<연세대대학원·
정외과 2학기>

I. 들어가는 말

1988년 들어서서 우리에게는 1988년 일들이 닦달하고 있다. 형태와 산주대교부가 설치되고 복소이발데단의 국공성이 진행되고 광화문에서 소련동구권이 국인들 열렬한 응원을 만난다.

그렇다면 또 한 학생회에서의 학생들은 이렇게 모든 불의와 같은 현상으로서 우리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가? 바쁜 학생이라는 특수한 범주의 성원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학생은 일상화로 정의감이 강하고 정의와 진리를 가진다는 점이고 그의 절대적인 믿음은 인식하고 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맥이지만, 모든 불의에 맞서는 행동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은 부모에게 현실을 높은 비판적 인식으로 치사화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가치있는 비판과 실천도 결의해낸다.

일제 시민시대 이외에도 4·19만보더도 이는 쉽게 증명되며 지난 8년간 6월의 민주화에 대한 법칙인 걸기 역시 학생운동이 현실적 노력이 드러선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즉, 한국사회의 범위에 대한 부분 역시 크게 적용을 한다. 낡았음을 학파하고 세월을 환경오염과 같은 학생들에게 위장자와 백성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구상권과의 충돌로 일본과의 시리즈로 개발하여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렇듯 각 국가와 체제 그리고 일본국의 구상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표지를 어떻게 신네트워크와 남·북한화해의 후보기로 전개되었으며 이후의 주인은 어떻게 훌륭한 개인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II. 80년대 후반의 신데 탕트의 등장

1987년 12월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미사일 (INF) 평기 협정을 체결하면서부터 신데 탕트는 우리 앞에 명확히 다가가기 시작했다.

▲사과를 세계에 대한 각

관의 반영인 지식(知識)은 인간의 능동성과 기여가루로써 세계를 주성화하는 자주적 사상의식으로 전파된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자주실현의 터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학제의 철학으로 3세계의 기여로 철학에서의 해방, 지식인에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

은 비로 세계가

